

적치하 서울과 염상섭

— 1950년대 초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 만 영*

요약

본 논문에서는 적치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염상섭의 단편소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염상섭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동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약 3개월간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이러한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의 아침」, 「탐내는 하꼬방」, 「짜나이프」, 「자전거(自轉車)」, 「기택수색」, 『홍염』, 『취우』 등 다수의 작품을 남긴 바 있다. 이 가운데 적치하 서울을 다룬 염상섭의 단편소설은 그간의 연구에서 배제되어왔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방의 아침」, 「짜나이프」, 「탐내는 하꼬방」, 「자전거」 네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염상섭이 해방기 내내 고수해왔던 중도적 입장이 어떠한 균열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좌익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해방의 아침」과 「짜나이프」는 9·28 서울 수복 이후 민족 재건의 방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해방의 아침」은 서울 수복 후 부역자 선별 및 처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염상섭은 부역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자기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잔류민들의 곤경을 그려내고, 이들을 손쉽게 축출하고 배제하려는 정치사회적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한다. 「짜나이프」는 좌익 세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도, 이들을 포섭하여 통일된 민족국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작가적 욕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분열보다는 통합을, 배제보다는 포함을 지향하는 염상섭 나름의 정치적 신념을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탐내는 하꼬방」과 「자전거」는 적치하 기간 중 잔류민이 겪었던 고통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탐내는 하꼬방」은 적치하 서울에서 좌익 세력에 의해 소유권이 무단으로 박탈당하는 잔류민의 비애를 그려낸 작품으로, 서울 수복 직후

* 고려대 강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역산(逆産)’을 전면화한 문제작이다. 한편 「자전거」는 적치하의 서울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으로, 부역자 가족인 삼룡-차득 부자(父子)에 의해 자율적인 사랑과 자립적 생존이 어려운 현실을 재현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좌익 세력에 의해 소유권을 모두 빼앗겨 신음을 반복했던 「탐내는 하꼬방」의 필준네와는 달리, 적치하 기간에 내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며 ‘해방’을 꿈꾸는 능동적인 존재를 그려내고 있다. 적치하 서울을 다룬 그의 단편소설은 그가 중도적 입장과 반공적 입장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태롭게 서 있었음을 예증한다. 이는 이들 작품에서 좌익이 형상화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염상섭이 해방기부터 고수해왔던 중도적 입장이 어떠한 균열·변화를 겪었는지를 네 편의 단편소설을 통해 규명하였다.

주제어: 염상섭, 적치하 서울, 서울 수복, 좌익, 부역(자), 분열, 배제, 통합, 포함

목차

1. 들어가기
2. 민족 재건의 꿈과 통합에의 길 - 「해방의 아침」, 「쩍나이프」
3. 소유권의 박탈과 사랑의 (불)가능성 - 「탐내는 하꼬방」, 「자전거」
4. 나가기

1. 들어가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6월 28일부터 동년 9월 28일까지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염상섭은, 서울 수복 직후에 돌연 이무영·윤백남과 함께 해군 입대를 결심한다. 1950년 11월 말 그는 50대의 노구(老耇)를 이끌고 ‘FS 여주호’에 승선하게 되는데,¹⁾ 그의 자전적 소설 「하치않은 回憶」(1960.12)에서는 그가 입대 당시 어떠한 감회에 젖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1) 윤일주, 「海軍生活에서」, 『현대문학』 101호, 현대문학사, 1963.5, 63면.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다. 석 달 동안 부대끼느라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이 서울을 하루 바삐 빠져나가는 것만 수다. 위선 배라도 타게 된다니, 꿈꿈 몽친 가슴 속이라도 후련히 터질거라 그아니 시원하냐는 말이다. 두말없이 내일 S제독을 만나는 자리에 나도 참석하기로 약속하였다. 멸공(滅共)의 제1선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나설 장지(壯志)에 필필 떨 것만 같다. (...) 허허허 머리가 좀 돈 것 같기도 해……. 그러나 내가 머리가 돌았거나 무작정하고 화풀이 분푸리로 자학적(自虐的)으로 나서려는 것은 아니다.²⁾

염상섭에게 있어서 서울에서의 3개월은 그야말로 ‘진절머리가 나는’ 기간이었다. 현재로선 그 기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가 ‘멸공의 제1선’에 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고취되었던 것을 보면 ‘적치하 서울’³⁾의 기억은 그에게 적지 않은 상흔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염상섭이 ‘멸공’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면서까지 공산주의(자)를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해방기 내내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주장하고 좌우합작을 내세웠던 그의 이력, 그리고 적치하 서울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이데올로기적 갈등보다는 개인적 애육에 포커스를 맞췄던 『취우』를 고려해봐도 그러하다. 물론 염상섭의 이러한 고백이 용공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도적인 ‘기억 조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해

2) 염상섭, 「하치않은 回憶」, 『예술원보』 5, 대한민국예술원, 1960.12, 149면. 강조는 인용자.

3) 본고에서 활용된 ‘적치하’는 1950년 6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던 기간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인민군 치하’, ‘인공 치하’ 등이 있는데, 이들 용어는 ‘적치하’보다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인민군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염상섭의 사유를 고려하여 ‘적치하’라는 용어를 선택·활용하고자 한다.

군에서 정훈업무를 수행했던 이선구의 증언을 보면 그 해석이 그리 적절치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六·二五 動亂이 일어났다. 우리는 모두 釜山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나는 橫步先生을 두 번째 만났다. 그것은 海軍政訓監室이었다. 橫步先生이 中立으로 解放以後 文壇의 左右合作을 試圖한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六·二五 動亂으로 共產黨의 正體가 露出됨에 따라 橫步先生은 中立의 꿈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었다. 길은 한 갈래, 그분은 敢然히 海軍招請에 應하여 現役政訓將校로 入隊한 것이었다.⁴⁾

이선구의 회고에 나와 있듯, 염상섭은 해방 이후 중립적인 위치에서 문단의 좌우합작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더 구체적으로 말해 ‘적치하 서울’을 경험한 이후, 그가 견지하고 있었던 ‘중립의 꿈’은 산산히 깨지고 만다. 자주적인 민족통일과 좌우합작을 지향했던 ‘해방기의 염상섭’과 멸공 멘탈리티에 입각해 해군 입대를 자청했던 ‘1950년 11월의 염상섭’. 이 두 시점의 염상섭 사이에는 적치하 서울에서의 개인사적 경험이 가로놓여져 있다. 말하자면 서울이 함락되었던 6월 28일부터 서울이 수복되었던 9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에 머무르면서 보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염상섭의 신상과 이념적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적치하 서울에 대한 기억이 염상섭에게 인식론적 굴절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를 배경으로 한 염상섭의 소설은 그가 가진 인식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적치하 서울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그의 작품으로는 「해방의 아침」, 「썩나이프」, 「탐내는 하꼬방」, 「자전거」, 「가택수색」, 『홍염』, 『사선』, 『취우』 등이 있는데, 그간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왔던 텍스트는 단연 『취우』였다. 『

4) 이선구, 「觀察者의 生涯」, 『현대문학』 101호, 현대문학사, 1963.5, 58면. 강조는 인용자.

『취우』를 염상섭의 후기 대표작으로 거론했던 김종균의 연구 이래로,⁵⁾ 대다수의 연구들은 적치하 염상섭의 내면풍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 작품이 가진 문학(사)적 의미를 고평해왔다. 이를테면 김윤식은 “작가 염상섭에 있어 6·25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제일 확실한 대답이 장편 『취우』이다.”라고 단언한 바 있고,⁶⁾ 이보영도 “8·15 해방 후 염상섭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장편소설”로 취우를 거명하였으며,⁷⁾ 김경수 또한 『삼대』에 버금가는 해방 후의 문제적인 장편이 바로 『효풍』과 『취우』임을 밝히고 있다.⁸⁾ 이처럼 『취우』는 적치하 서울을 다룬 염상섭의 텍스트 중 압도적인 관심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⁹⁾

그에 반해 적치하 서울을 다룬 염상섭의 단편소설은 그간의 연구에서 배제되어왔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작품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의 아침」,¹⁰⁾ 「썩나이프」,¹¹⁾ 「탐내는 하꼬방」,¹²⁾ 「자전거」,¹³⁾ 「가택수색

5)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 출판부, 1974, 234-239면.

6)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819면.

7) 이보영, 『염상섭 문학론』, 금문서적, 2003, 292면.

8)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240면.

9) 『취우』만을 대상 텍스트로 삼은 연구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일별하자면, 신영덕, 「『취우』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성격」, 『한국현대문학연구』 1, 한국현대문학학회, 1991; 김종욱,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일상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김양선, 「염상섭의 『취우』론 - 욕망의 한시성과 텍스트의 탈이념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어문』 14, 서강어문학회, 1998; 이철호, 「반복과 예외, 혹은 불가능한 공동체 - 『취우』(1953)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김영경, 「적치하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 - 염상섭의 『취우』 연구」, 『어문연구』 4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공중구,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한국전쟁」, 『현대문학이론연구』 7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염상섭의 『취우』와 한철야의 『대동강』을 비교한 연구, 『취우』를 포함하여 적치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여타의 작품을 다룬 연구까지 포괄한다면 『취우』에 관한 개별 연구 논문은 20여 편을 상회한다.

10)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1년 1월호(전시판), 98-107면.

11) 염상섭, 「썩나이프」, 『국제신보』, 1951.11.21-28. 「썩나이프」의 경우 그간 명확한 서지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윤식은 「썩나이프」가 “1951년 9월 18일 작이며, 신문에 2회 게재”되었다고 밝혔고(김윤식, 위의 책, 912면), 김경수도 그 서지사항을 그대로 따른 바 있다(김경수, 앞

」¹⁴⁾ 중에서 「탐내는 하꼬방」을 제외한 네 작품은 그간 염상섭 전(전)집

의 책, 269면). 이처럼 「썩나이프」가 어떤 신문에 연재되었는지 그간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나보령에 의해 1951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국제신보』에 연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연재 일자에서 일부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확인 결과 「썩나이프」는 『국제신보』에 1951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7회 연재되었다. 나보령의 논문은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44면을 참조.

12) 「탐내는 하꼬방」의 최초 발표 지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신생공론』(1951.7)에 발표되었다는 설이다. 이는 민음서관 전집에서 「탐내는 하꼬방」이 1951년에 발표되었다는 언급이 있는 후, 김경수(『염상섭의 현대소설의 형성』, 앞의 책, 269면; 「작품목록」, 『염상섭 중편선 - 만세전』, 문학과지성사, 2014, 500면)를 통해 재확인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신조』(1952.1)에 발표되었다는 설이다. 이는 나보령(위의 논문, 44면)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필자가 과문한 탓에 「탐내는 하꼬방」이 수록된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지만, 이 작품이 최초로 발표된 지면은 『신조』가 아닌 『신생공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탐내는 하꼬방」에 대한 당시 평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효는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문학예술』, 1953.1~4)이라는 글에서 “염상섭은 1951년 봄에 쓴 단편 「탐내는 하꼬방」에서...”라며 발표 시점을 명기한 바 있고, 한설야도 평양시 문학 예술 선전 출판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반동분자 염상섭은 1951년에 쓴 그의 단편소설 「탐내는 하꼬방」에서...”라며 작품에 대한 평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로 비추어 보아, 「탐내는 하꼬방」의 최초 발표지면은 1951년 7월 『신생공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효와 한설야의 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이북편/1950~1953)』, 태학사, 1993, 481면; 한설야, 「평양시 당 관하 문학 예술 선전 출판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한 한설야 동지의 보고」,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3(이북편/1953~1956)』, 태학사, 1993, 503면.

13) 염상섭, 「자전거(自轉車)」, 『협동』 36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1952.9.1. 「자전거」는 1952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총 두 차례에 걸쳐 제목이 변경 · 수록되었다. 1953년에 해군본부정훈감실에서 발간한 『단편소설집』에 「가위에 눌린 사람들」로, 1973년에 정음사에서 발간한 『얼룩진 시대풍경』에 「생지옥」으로 각각 작품명이 변경되어 수록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작품명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한다.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될 때 제목이 한자로만 표기되었던 탓에,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 작품을 표기할 때 「자전차」와 「자전거」를 혼용해왔다. 그러나 「자전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自轉車」를 읽을 때 「자전거」로 쓰는 것이 국어 표기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자전차」를 「자전거의 비표준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말샘에서도 규범 표기를 「자전차」가 아닌 「자전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 또한 「자전거」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염상섭도 이 작품의 본문에서 「자전거」라는 표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본문에서 「자전차」라는 용어는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았던 반면 「자전거」로 표기된 부분은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염상섭의

기획에서 번번이 누락되어 왔고, 심지어 아직까지 작품의 소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작품도 있다. 즉, 「잭나이프」와 같이 최근에 와서야 작품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가택수색」의 경우처럼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작품도 존재하기 때문에 적치하 서울을 다룬 단편들은 그간 연구자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영덕이 처음으로 적치하 서울을 다룬 염상섭의 단편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최근에 이르러 신은경·나보령 등의 연구자들이 이를 재차 논의한 바 있다.¹⁵⁾ 신영덕의 연구는 적치하 서울을 다룬 염상섭의 단편들을 분석 대상으로 호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전쟁기에 발표된 염상섭의 장단편 소설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소략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의 연구 이후에도 적치하 서울을 그린 작품들은 여전히 학계의 관심을 불러오지 못하다가 최근 두 연구자에 의해 이 작품들이 재조명되었다. 먼저 신은경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혈연 집단이 분열되고 해체되는 양상을 ‘내부냉전’이라 명명하고, 이 개념을 토대로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 「탐내는 하꼬방」, 「자전거」 등의 작품을 섬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는 이 작품들이 전선에서 적과 싸우는 분쟁보다는 전쟁터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가족을 비롯한 혈연 집단의 내부적 갈등을 주요하게 재현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나보령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자전거」와 『취우』와 같은 작품에서 재현되는 전쟁은 계급의식이나 이념에 따른 갈등보다는 친밀성을 유지하고 있던 집단 내의 갈등에 가깝

「自轉車」는 한글로 표기할 시에는 ‘자전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표기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14) 「가택수색」은 1953년 7월 20일 『대한신문』에 발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현재까지 명확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5) 신영덕, 「전쟁기 염상섭의 해군 체험과 문학활동」, 『한국학보』 18-2, 일지사, 1992; 신은경, 「1950년대 전시소설 연구 - 전시의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나보령, 앞의 논문.

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그는 염상섭의 소설이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 속에 파고드는 ‘작은 전쟁’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취우』에 치중해있는 기존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적치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¹⁶⁾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두고자 한다. 첫째,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이들 연구와는 초점을 다르게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신은경과 나보령의 연구는 ‘내부냉전’ 내지는 ‘작은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친밀집단 내부의 분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반해 본 연구는 작품에 접근함에 있어 해방기 염상섭이 고수했던 중도적 입장이 어떠한 균열을 일으키는 지, 그리고 좌익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초점에 두고자 한다. 말하자면 소설 텍스트에 재현된 ‘분쟁의 성격’보다는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염상섭의 ‘정치적 입장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대상 텍스트를 확장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다섯 작품, 즉 「해방의 아침」, 「썩나이프」, 「탐내는 하꼬방」, 「자전거」, 「가택수색」 중에서 그간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작품은 「썩나이프」와 「가택수색」 두 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가택수색」은 아직까지 그 소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치하 서울을 다룬 염상섭의 단편 중 「가택수색」을 제외한 네 작품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6) 이 외에도 김영경, 이민영의 연구도 적치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염상섭 단편소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김영경은 『취우』를 주요 대상 텍스트로 삼은 터라 적치하를 다룬 단편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이민영도 전시소설 전반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염상섭의 단편으로는 「해방의 아침」만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경, 앞의 논문; 이민영,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353-386면을 참조.

2. 민족 재건의 꿈과 통합에의 길 - 「해방의 아침」, 「썩나이프」

서울을 수복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선문학』(『문학』戰時版)에는 문단을 뒤흔드는 텍스트 하나가 발표된다. 「反逆文化人名簿」가 바로 그것인데,¹⁷⁾ 이 명부에는 한설야, 이태준, 이기영, 김남천, 임화 등의 좌익 성향의 문인에서부터 염상섭, 황순원, 백철, 이봉구와 같은 문인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문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조연현의 말대로 이 문건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서울에 잔류했던 문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¹⁸⁾ 이 명부와 함께 첨부된 「反逆文化人에게 보내는 警告文」에는 ‘반역문화인’들에 대한 격정적인 분노가 가감 없이 표현되어 있다.

어리석은 불쌍한 이기영, 이태준, 한설야, 임화, 안희남, 김남천, 이원조, 이복명, 안함광 등 그밖의 여러 새끼 반역자들아! 귀담아 듣거라! 너희들 상기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안을 비웃는다면 그 마지막엔 처참한 죽음이 너희들을 알뜰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죽은 녀도 지옥의 문 안에서조차 寸土를 빌리지 못할 것이니 하루빨리 너희들의 살인문학, 사기문학, 강도문학을 팽겨치고 배달 거래의 정신 앞에 두 무릎을 꿇으라! (...) 귀중한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피붙이의 안전을 보전하려거든 태양처럼 휘황히 세계만방에 빛나는 ‘민주주의’의 대의명분을 저주하던 붉은 귀신의 제단에서 뛰쳐 나오라!!¹⁹⁾

17) 「反逆文化人名簿」, 『전선문학』(『문학』戰時版), 중앙문화협회, 1950.10, 51-52면.

18) 조연현에 따르면, ‘문협’ 측은 이 명단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곧바로 잡지의 배포를 중단시키고 이미 배포된 잡지를 회수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경합동조사본부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곧바로 내사하기에 이른다.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88-89면.

19) 「反逆文化人에게 보내는 警告文」, 『전선문학』(『문학』戰時版), 앞의 책, 49-50면.

위에 명시된 것처럼 이 글은 ‘반역문화인’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반역문화인들이 좌익에 동조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주의’의 길로 회귀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이 발표된 직후인 1950년 10월 초부터 부역 문인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내사가 시작된다.²⁰⁾ 문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부역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한 달간 검거된 자는 전국적으로 5만 5천여 명, 서울·경기에서만 약 2만 5천여 명을 상회했다.²¹⁾ 이 중에서 120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서울을 수복한 직후 남한은 부역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²²⁾

염상섭의 「해방의 아침」은 그가 ‘반역문화인’으로 지목되고, 그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시점에 집필된 작품이다. 이 작품이 발표된 때는 1951년 1월이지만, 소설의 말미에 “八三年 一月 二十四日 鎮海向發前夜”라고 표기된 것을 볼 때 이 작품이 실제 탈고된 시점은 그가 해군 입대를 하루 앞둔 11월 24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해방의 아침」은 염상섭이 부역 문학자로 지목되고 때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급박한 시점, 그리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무영·윤백남과 함께 해군에 입대하기로 한 바로 그 시점에 집필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에 전면화된 ‘부역자 처벌’이라는 문제는 염상섭이 놓인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의 아침」은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는 날 아침, 인임이가 모친과 함께 아랫목에서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는 것에서부터 서사가 시작된다. 이들은 잠시 후 서울이 수복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도하게 되지만, 치안대가 들어온 첫날부터 이웃이었던 원숙 어머니가 불들려갔다는

20) 부역 문인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유승환, 「잔류파와 도강파의 내적 논리와 ‘공모의 공간’으로서의 고백적 글쓰기」, 『우리어문연구』 71, 우리어문학회, 2021, 257-265면을 참조.

21) 「五萬 五千餘 名, 전국 부역자 검거수」, 『동아일보』, 1950.11.16.

22) 「百二十 名 死刑言渡, 四十 名은 刑을 執行」, 『조선일보』, 1950.11.14.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그러던 중 이튿날 급작스레 치안대원이 찾아와 인임이네 집을 수색하게 되고, 그곳에서 쌀 3가마니와 광목 17통이 발견된다. 그 결과 인임이의 부모도 치안대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인임이네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반감은 증폭된다.

빨갱이와는 가당치도 없다고 운동리가 인정하는 인임이네가, 알고보니 빨갱이요, 말았거나 훔쳤거나 어마어마한 물건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고 깃구멍 댕겨서도 말들이 없이 종용하였다. “내 그저 그 귀여워하는 딸을 아무리 먹기에 어렵기로 빨갱이 공장에를 보내대라니! 원숙어머니가 넣어주었다고 할제부터 수상쩍드라...” 먹을 수 없어 쌀배급 준다는 바람에 딸을 내놓은 것도 사실이지마는, 여성동맹에 끌려나갈까 걱정ियो, 의용군이 붙들려갈까 무서워서 이리 숨기고 저리 빼돌리고 하던 판인데, 원숙어머니가 자기 다니는 공장에 자리가 났다고 슬며시 권하기에 집어넣었던 것이요. (...) 열두 시간 노동이입 밤일 차례가 오면 노상 앓으며 다니는 것이 가엾어서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들어앉히고 쉬쉬 숨겨오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빨갱이의 혐의를 뒤집어쓰는 조건이 되고 말았다.²³⁾

서울이 수복된 이후 인임이네 동네는 부역 여부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는 공포의 공간으로 화하게 된다. 인민군이 퇴각한 자리에서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마을 사람들 간의 친밀한 관계는 돌연 적대와 의심의 관계로 변모된다. 그리하여 치안대에 의해 쌀과 광목이 발견된 이후부터 인임이네가 적치하 기간에 행했던 모든 행위는 ‘빨갱이’라는 레테르를 붙이는 근거로 해석되기에 이른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인임이를 공장에 집어넣었던 행위마저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

23) 염상섭, 「해방의 아침」, 앞의 책, 104면, 강조는 인용자.

수립한 ‘부역자 처리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고려해볼 때 적치할 때 인임이네가 행했던 일들은 부역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 원칙이란, 부역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① 6·25 이전까지 좌익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가 자기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부득이 소극적으로 부역한 자, ② 소극적으로 공산 측에 추종했으나 군경, 공무원, 민족진영 지도자 및 가족을 구조한 자, ③ 피동적으로 부역한 자라도 대한민국에 충성하여 협조한 실적이 있는 자는 불문에 부치거나 포섭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인데,²⁴⁾ 인임이 부모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인임이를 공장장으로 보내는 행위는 분명 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면죄부를 얻을 소지가 다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임이네는 가혹한 처벌 프레임으로 인해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적극적 부역’인지 ‘소극적 부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임이네와 같은 잔류민들은 ‘빨갱이’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자기 힘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우려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임이네에게는 ‘부역자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그 결과 인임이 부모는 ‘빨갱이’ 혐의를 받아 치안대로 끌려가게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끌려간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인임이의 진술에 의해 풀려나게 된다. 인임이는 자기 부모와 함께 취조받겠다고 자청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원숙 어머니가 공장의 여맹지부 위원장이었고 자기 집에서 발견된 쌀과 광목은 모두 원숙 어머니가 빼돌린 물품이라고 진술한다. 말하자면 인임이는 부역자로 몰린 자기 가족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이었던 원숙 어머니의 부역 행위를 고발했던 것이다. 이는 부역자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이웃마저 고발할 수밖에 없는 냉전 체제의 사회적 풍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24) 「부역자 적발에 만전 - 군경경 합동수사본부 설치코 본격 활동」, 『동아일보』, 1950.10.22.

이와 같이 「해방의 아침」은 잔류민들이 처한 곤경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면서, 부역자/비부역자의 경계선이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그 흐릿한 경계선 위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잔류민의 신원 증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작가적인 물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염상섭은 ‘해방의 아침’부터 잔류민들이 당면해야 했던 문제, 즉 부역자/비부역자라는 분할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때 ‘반역문화인’으로 지목되었던 자신 또한 긴밀하게 연루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에서 볼 때 인민군이 몰려간 자리에 ‘내부의 적’을 설정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말해 누가 부역자이고 누가 부역자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았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 협력한 체했던 인임이네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이념적 결백을 증명할 것인가. 염상섭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작품 속에 투영하고자 했다. 그래서 「해방의 아침」은 여느 반공 서사와 달리, ‘빨갱이’라고 지칭되는 원숙 어머니의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이념적인 신원 증명이 불가능한 현실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잔류민들이 처한 곤경이 어떠한지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여맹 위원장이었던 원숙 어머니가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유린하는 가해자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물론 그녀가 쌀과 광목을 빼돌린 행위 자체는 단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자행되었고 또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원숙 어머니는 오히려 인임이의 밀고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 형상에 가깝게 그려진다. 이러한 재현 전략은 염상섭이 좌익과 우익의 분할선을 명확하게 하고 좌익을 사회 바깥으로 축출하는, 이른바 ‘배제’의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작품을 토대로 볼

때, 염상섭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부역자이고,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다. 그에게는 서울 수복 후 반공이라는 명목하에 공동체를 통합시키고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자행되었던 정치, 즉 불순한 잔류민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배제의 정치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은 이후에 발표되는 「썩나이프」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썩나이프」가 발표되기 두 달 전인 1951년 9월, 염상섭은 월탄 박종화와 함께 “문단을 재건하라”는 주제를 놓고 대담을 벌인다.²⁵⁾ 이 자리에서 사회지는 최근 발표된 염상섭의 글²⁶⁾을 흥미롭게 읽었다고 밝히면서, 문학 분야의 여당에 해당되는 인물이 월탄이고 야당에 해당되는 인물이 염상섭이니만큼 두 사람 사이에 자유로운 상호 비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염상섭은 “우리의 대립이란 외부에서 심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품에 지나지 않”다고 일축하고, 문단이 야당 여당을 따지면서 서로 욕하고 비



염상섭이 쓴 「一人一題」 뒷수습을 바란다(『부산일보』, 1951.8.29). 이 글을 포함하여 『부산일보』에 수록된 염상섭 관련 글은 그간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5) 「대담 : 문단을 재건하라 (1)~(3)」, 『부산일보』, 1951.9.21~23.

26) 염상섭이 쓴 「一人一題」 뒷수습을 바란다(『부산일보』, 1951.8.29)을 말한다.

관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종화는 비록 좌익이라 할지라도 “모든 자유주의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바로 염상섭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면서, 대립을 지양하고자 하는 염상섭의 정견이 예전부터 고수되었던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이 대담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염상섭이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좌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자유주의로 나아가고자 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염상섭의 정견은 「쩍나이프」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 작품의 시공간은 1950년 9월 25일부터 동년 9월 28일까지의 서울로 설정되어 있다. 주인공 범일 선생은 국군이 곧 서울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마음이 들뜬 나머지, 양복을 갖춰 입고 거리를 나선다. 거리를 배회하던 중 그는 노동당 ××區 본부 건물에서 나오는 두 명의 여학생을 마주치게 되고, 그 중 저고리 속에 찹나이프를 숨긴 한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범일 선생은 그 여학생이 최인순임을 알고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녀는 R여중부터 R여대 2학년 재학 때까지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집에서 하숙을 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이 지나, 동네에서 손꼽는 부자였던 귀현이네 집에 권총 찬 ‘빨치산’이 침입했다는 소문이 돈다. 그리고 얼마 후 최인순과 그녀의 동생 의순이 범일 선생의 집에 두 차례나 찾아와 방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범일 선생 내외는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그리고 서울이 수복되는 날 범일 선생은 국군에 의해 끌려가는 최인순과 눈을 마주치게 되고, 자신을 보자마자 고개를 파묻듯이 숙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된다.

범일선생의 눈은 한순간 불뎡이처럼 타올랐다. 전신의 피가 끓으면서 발을 굴르고 꾸짖는 소리가 그 눈의 불에서 뿜어나오는 것이었다. “고래 싸지!” 선옥이의 입에서는 저절로 이런 소리가 흘러 나왔다. “물론! 그런

것은 없애버려야하지! 그러나 커다케 나라를 생각할제 그 얼마 분할 노릇이냐! 아까운 일이다!" 범일선생의 목소리마자 발을 굴르고 뭉부림을 치는 듯 싶었다. 그 노기에 핏발이 솟은 눈에서는 눈물이 꾸루루 흘러나 렸다.²⁷⁾

이 소설에서 범일 선생과 최인순의 갈등은 서스펜스적인 요소까지 가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쥘리아프를 소지하고 있는 최인순과 그녀의 매서운 눈빛에 공포를 느끼는 범일 선생, 이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은 서울 수복을 계기로 손쉽게 봉합된다. 최인순에 의해 언제 살인이나 강도를 당할지 모르는 범일 선생의 불안감이 작품 전반을 지배하다가 서울 수복 직후 갑자기 범일 선생의 분노와 눈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마무리는 다소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결말은 중층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염상섭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첫째,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윤리적 우위이다. 이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는 범일 선생과 최인순이 조우하는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는 최인순이 소지한 쥘리아프와 그녀의 매서운 눈빛이 제시되고, 이를 목격한 범일 선생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 그에 반해 작품의 말미에서는 쥘리아프를 분실하고 범일 선생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최인순이 등장하고, 범일 선생은 그런 그녀를 분노 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렇듯 두 사람 간의 시선 및 태도의 변화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위를 염두에 둔 염상섭의 서사적 기획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이 수복되자마자 공산주의(자)의 폭력성을 은유하는 쥘리아프가 사라진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최인순이 가진 쥘리아프는 범일 선생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공포감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따

27) 염상섭, 「쥘리아프 ㉑」, 『국제신보』, 1951.11.28. 강조는 인용자.

라서 그녀가 썸나이프를 분실한 채 끌려가는 마지막 장면은, 서울 수복 이후 공산주의(자)가 유발했던 사회적 공포가 완전히 사라질 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 패퇴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염원이다. 이러한 염상섭의 목소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것은 없애버려야하지! 그러나 커다란 나라를 생각할제 그 얼마 분할 노릇이나! 아까운 일이다!”라는 범일 선생의 외침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범일 선생은 최인순과 같은 폭력적인 좌익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커다란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응징과 처벌은 분하면서 아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좌익 세력을 적대의 자리에 분명하게 배속시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에 필요한 존재로 재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대로 염상섭이 「썸나이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윤리적 우위’와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에 대한 열망’이었다. 전자는 썸나이프를 든 최인순과 같이 폭력적인 좌익 세력을 재현함으로써, 후자는 그러한 좌익 세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커다란 나라’를 생각하는 범일 선생을 재현함으로써 각각 구체화된다. 이렇듯 염상섭은 좌익 세력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때 ‘반역문화인’으로 공격받았던 자신의 정치적 신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방기 내내 고수해왔던 민족통일과 좌우합작의 신념을 가까스로 이어 나간다. 이쯤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문단을 재건하라」라는 대답을 재차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서 염상섭은 우리의 대립이란 외부에서 만든 창조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박종화는 설사 좌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유주의자라면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가 바로 염상섭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볼 때, 염상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격발된 사건이기에, 좌익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와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들 중 자유를 지향하는 이들까지 포섭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썸나이프」는 그러한 염상섭의 입장을 농후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염상섭은 당대 우파 문인들이 주창했던 반공문학론을 그저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족통일’을 자신의 문학적 축점으로 삼고자 했다. 이는 “멸공(滅共)의 제1선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나설 장지(壯志)에 필필 뿔 것만 같다.”라는 가열찬 의지를 갖고 해군에 입대했던 그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태도이다. 염상섭이 피력한 ‘멸공’에의 의지만을 근거로, 그가 조연현을 비롯한 문협 정통파 계열이 내세웠던 반공제일주의 문학과 같은 인식을 견지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염상섭은 좌익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반응했으면서도 그 이념에 경도된 자들에 대해 적대와 응보의 시각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라는 윤리적 질문을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해방의 아침」과 「썸나이프」는 바로 그러한 염상섭의 윤리적 목소리를 잘 투영한 작품들이다. 「해방의 아침」에서는 부역 여부에 따라 잔류민들을 관별·처벌하려는 응보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모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냈는가 하면, 「썸나이프」에서는 좌익 세력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이들을 ‘커다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호명하려는 그의 의지가 강렬하게 표출되어 있다. 이는 “6·25의 악몽과 같은 일시의 분요(紛擾)쯤은 문제도 아니다. 차라리 민족통일·민족정신의 강인하고 줄기찬 단결력으로써 민족문학은 금후 일층 활발히 신경지를 개척하고 발흥할 기운”²⁸⁾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지향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28) 염상섭, 「한국의 현대문학」, 『문예』, 1952.5, 12면;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III』, 소명출판, 2014, 209면.

3. 소유권의 박탈과 사랑의 (불)가능성 - 「탐내는 하꼬방」, 「자전거」

「해방의 아침」과 「잭나이프」가 적치하 기간을 거친 이후 민족을 어떻게 재건하고 통합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면, 「탐내는 하꼬방」과 「자전거」는 적치하 기간 중 잔류민들이 처한 근경과 그로 인해 주조되는 비애의 감각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후자의 작품들에서는 가해자(부역자를 포함한 좌익 세력)와 피해자(선량한 잔류민)라는 이분법적인 인물 구도가 더 선명할 뿐 아니라, 좌익 세력의 탐욕과 악행이 좀 더 부조되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탐내는 하꼬방」은 ‘가해자로서의 부역자와 ‘피해자로서의 비부역자’라는 인물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하꼬방을 탐내는 부역자 박일성네 부부와 이를 지키려는 필준이네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필준이네 가족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집에 있는 물품을 하나씩 팔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인민군 점령이 장기화되면서, 그들은 집에 있는 옷가지를 팔아 하꼬방 하나를 급히 장만하고 그곳에서 어렵사리 삶을 영위해 나가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하꼬방을 헐어버리라는 내무서원과 호시탐탐 하꼬방을 노리는 박일성네 부부와 같은 적대세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전쟁이라는 폭력 아래에서 필준이네와 같이 기본적인 삶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생존과 생활의 물적 토대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소설에서 하꼬방은 바로 그러한 삶의 토대이자 원천으로 그려지는데, 문제는 적치하 상황에서 그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인민군이 들이닥친 적치하 서울은 재산권이나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초법적이고 예외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필준이네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꼬방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소유로 인해 불

안에 휩싸인다. 소유권의 경계선이 흐릿해진 상황 속에서, 필준이네는 언제든 하꼬방의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家長 필준이(진숙 아버지)는 이북으로 올라가려는 인민군의 중용에 못 이겨 결국 북으로 가다가, 그 대열에서 홀로 빠져나와 집으로 숨어들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박일성네 부부를 비롯한 좌익 세력들에 의해 결국 필준이가 잡히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진숙 어머니는 남편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를 곱뜨려 스러질 때까지 병어리처럼 아무 소리 없이 떨거니 섰었다. 눈에는 눈물 한 점 스며나지 않았다. 대문도 거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온 진숙 어머니는 자는 아이들 옆에 쓰러지며 고개를 파묻고 비로소 목이 메여 울음이 복받쳤다. 한 십 분은 그대로 인사 정신없이 울었으리라. (...) 이튿날 이집 대문짝과 하꼬방에 네모 반듯한 하얀 딱지가 붙었다. 내무서에서 ‘역산’이라고 붙여놓았다는 표다. 그러나 닷새 후 유엔군이 들어올 때까지 하꼬방의 문은 아니 열리었다. 다만 필준이의 소식만은 알 도리가 없었다.²⁹⁾

필준이네는 하꼬방 하나로 다섯 식구가 거의 연명하다시피 살고 있지만, 박일성네 부부는 쌀과 광목을 배급받으면서도 필준이네의 하꼬방을 어떻게든 탈취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러한 탈취가 다수의 인민들에게 분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박일성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이다.³⁰⁾ 결국 박일성네 부부에 의해 필준이가 잡혀가고, 필준이네 집과 하꼬방에는 ‘역산’이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여기에서 ‘역산(逆産)’은 말 그대로 반역자의 재산을 의미하는 바, 이 소설의 문맥에서는 인민군들

29) 염상섭, 「탐내는 하꼬방」, 『염상섭 전집 10』, 민음사, 1987, 271-272면.

30) “저희는 쌀배급 광목배급이니 소고기가 공짜로 들어왔느니 하고 평평거리고 살면서도 그 하꼬방이 부러워서 여편네를 그런 거나 시켜 보았으면 하고 배를 앓던 박일성이었으니...” - 위의 책, 262면.

이 필순이네를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역산’이라는 표식을 붙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인민군들이 ‘역산’이라는 딱지를 붙여 필순이네의 집과 하꼬방을 약탈해간 셈이다. 여기에서 거론된 역산 가옥이라는 문제는, 실제로 9·28 수복 이후 커다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에서만 4천 건이 넘는 역산 가옥이 신고가 되었을 만큼 ‘역산’은 중차대한 선결 과제로 간주되었고,³¹⁾ 특히 가옥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확한 관련 법률을 만들지 않은 상태였던 터라 많은 폐단을 야기하고 있었다.³²⁾ 더욱이 서울 수복 이후에도 ‘역산’이라는 딱지가 붙은 자산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당대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필순이네가 인민군에게 빼앗겼던 하꼬방은 어쩌면 영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염상섭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 즉 부역자가 남겨놓은 자산을 어떻게 잔류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요컨대 「탐내는 하꼬방」은 적치하 서울에서 인민군들이 탈취했던 ‘역산(逆産)’의 문제를 통해, 인민군에 의해 소유권이 무단으로 박탈당하는 잔류민의 비애를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재현된 것처럼 필순이네와 같은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언제든 그 권리를 박탈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내몰리게 된다. 이렇듯 선량한 잔류민에게 있어서 하꼬방과 같은 자산(資産)은 삶

31) 「구호미와 사회사업 등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 『조선일보』, 1950.11.2.

32) 당시 계엄사령부는 국회에서 역산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될 때까지 임시조치를 발표하는데, 발표된 내용에서는 동산(動産)에 대한 조치만 내려졌을 뿐 가옥이나 토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역산 한도 내서」, 『동아일보』, 1950.11.11). 그에 따라 그 당시 공권력에 의해 재산을 약탈하는 사례도 많았다. 김동춘에 따르면 9·28 수복 직후에 특무대, 경찰, 우익 치안대 등에 의해 월북자나 부역자의 집이 무단으로 점거·탈취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시 경찰국장이나 내무부장관이 엄중 경고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춘, 「약탈을 위한 국가의 폭력」, 『한겨레 21』 901호, 2012.3.7을 참조.

을 이어 나갈 희망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부역자나 인민군에 의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박탈의 기호로 간주되었다. 염상섭은 하꼬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역자와 잔류민 사이의 갈등을 날카롭게 포착함으로써, 좌익 이데올로그들이 갖는 이중적 면모를 고발함과 동시에 한국전쟁이 소유 체계를 어떻게 마비·동요시키는지 잘 구현해내고 있다.

「탐내는 하꼬방」과 마찬가지로, 「자전거」에서도 탐욕스러운 좌익 세력과 그로 인해 삶의 곤경에 처한 잔류민이 등장하고 있다. 「자전거」는 김동리로부터 “지금까지 써온 氏의 작품 전체 중에서도 우수한 것의 하나”라는 상찬을 받기도 했지만,³³⁾ 당시 평단에서는 큰 이목을 끌지 못한 작품이다. 서울 인근의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두 개의 서사를 축으로 삼고 있다. 하나가 한국전쟁 직후 사촌지간인 병훈이네 일가(父: 병훈 - 子: 상기)와 삼룡이네 일가(父: 삼룡 - 子: 차득)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목이라면, 다른 하나는 상기와 완희와의 사랑이다.

먼저 병훈이네 일가와 삼룡이네 일가 사이에 일어나는 반목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직 북한군의 통치 세력이 미치지 않은 이 마을에서는, 서울 각지에 인민위원회가 들어선다는 흥흥한 소문이 돌게 된다. 이 소문을 들은 구장(區長) 이종민은 조만간 인민군 세력이 마을을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자체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다.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추후 인민군 세력이 마을에 유입되더라도 ‘반동분자’로 몰리지 않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종민이 위원장, 병훈의 아들인 상기가 지도부장을 각각 맡아 인민위원회를 급조·운영하게 되지만, 서울에서 직공으로 일했던 삼룡의 아들 차득이가 몇 명의 지도원을 데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한다. 차득이는 이

33) 「자전거」는 지금까지 써온 氏의 작품 전체 중에서도 우수한 것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결말이 좀 수필적으로 흘렀고 또 「자전거」란 제목이 주제와 너무 동 뜬듯한 감이 있는데도, 금년도 作壇에서는 매우 귀중한 一篇이 아닌가 한다.” - 김동리, 「壬辰文化界決算 - 不振無實의 一年」, 『전선문학』 2, 1952.12, 69면.

중민과 상기가 급조했던 인민위원회를 밀어내고 그 임원들을 숙청하겠다고 나선다.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병훈과 삼룡 간의 갈등은, 이제 자식 세대인 상기와 차득 간의 갈등으로 격화되기에 이른다. 차득이는 ‘숙청’을 명목으로 상기를 공청에 불러 처벌할 뿐 아니라 완희의 집을 빼앗는 등 폭압적인 방식으로 마을을 관리한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차득이에 의해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바로 시점에 상기는 오히려 완희와의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간다는 사실이다. 이종민이 급히 피신을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 상기는 자전거 뒤에 완희를 태우면서 “난리고 빨갱이고 숙청이고 무서운 것이 없”³⁴⁾는 해방감을 느끼는 한편, 완희는 “아버지가 붙들려가는 지경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다. (...) 부글부글한 남자의 살끼와 뜨끈뜨끈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하여 전신에 퍼져나가는 것 같”³⁵⁾은 애욕의 감정까지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보령이 이미 적절하게 지적한 바 있듯, 자전거는 개인의 사적인 내면과 욕망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해석될 수 있다.³⁶⁾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표면적으로 차득이가 상기와 완희의 질투심 때문에 자전거를 빼앗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차득이의 행위는 사랑의 자유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위로 읽을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 자전거는 또 다른 서사적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의 후반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기의 마을은 전쟁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인민군이 삼천 명이나 거쳐 가면서 마을 내의 식량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만다. 그래서 추수기를 앞두고 차득이 운용하는

34) 염상섭, 「자전거(自轉車)」, 앞의 책, 131면.

35) 위의 책, 132면.

36) 나보령, 앞의 논문, 50면.

인민위원회에서는 제 논이라도 함부로 벼를 베지 말라는 규정을 만든다. 자기의 논마저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기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몰래 베어 온 벼를 자전거 바퀴로 타곡해주는 기지를 발휘한다. 이와 같이 자전거는 자기의 재산조차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케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그려진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자전거는 상기와 완희에게 있어서 내밀한 사랑이 허용된 최소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물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염상섭의 정치적 시각이 좀 더 선명하게 구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는데, 작품 후반부에서 상기는 자기네 논에서 벼를 도둑질해다가 먹는 현실을 두고 “빨갱이 천지의 수수께끼”³⁷⁾라며 탄식한다. 이러한 상기의 탄식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정서를 함유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살펴본 염상섭의 소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물론 이 작품에서 삼룡이와 그의 아들 차득이가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잔류민들에게 가했던 이들의 폭압적 행위가 독자들에게 있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염상섭의 인식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극적으로 표출되는데, 이는 자유로운 사랑을 꿈꾸면서 유엔군의 인천 상륙을 기다리는 상기의 모습과 폭력적인 좌익 세력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밤은 구장집 마당 모퉁이에서 되게 얻어 맞고 사무실로 끌려들어 가서 마루바닥에 꿰어앉아 밤을 새었다. 얻어 가지면서도 담하나를 격하여 완희가 지는 방에까지 들릴까보아 아파도 큰소리하나 못냈지마는 완

37) 염상섭, 「자전거(自轉車)」, 앞의 책, 143면.

회집에 와서 한지붕 밑에서 밤을 새는 것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위로도 되었다. “추석이 내일 모래였다. 인천 상륙은 했나? …… 보안대로 넘기기루 날 죽이기야하겠네. 며칠 있음 나와서 이놈 자식들 다시 보자!” 상기는 구벽구벽 졸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추석이 내일 모래지!” “인천상륙은 했나?”를 어렴풋이 뇌고 또뇌고 앉았다.³⁸⁾

상기는 자기네 눈에서 벼를 가져와 자전거로 탈곡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인민위원회에 소환된다. 당시 인민위원회는 완회의 집을 강제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위 인용문에서 상기는 인민위원회에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완회와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샌다는 것에 위안을 느낌과 동시에 유엔군이 하루빨리 인천에 상륙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처럼 염상섭은 완회와의 내밀한 사랑과 유엔군에 의한 ‘해방’을 꿈꾸는 상기, 그리고 이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좌익 세력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해방기 내내 자신의 민족주의를 반공주의와 결부시키지 않았던 그의 태도³⁹⁾와 「썩나이프」에서 보여주었던 민족통합에의 의지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염상섭의 시각은 분명 당혹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설사 그의 전시소설이 “이념보다는 전쟁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 욕망과 욕구를 중요한 문제로 제시”⁴⁰⁾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자전거」에서 상기와 차득이의 갈등이 “추상적인 계급의식이나 이념 갈등을 통해 상상된 적대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쌓은 구체적인 감정들에 기반”⁴¹⁾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펴본 「썩나이프」, 「탐내는 하

38) 염상섭, 「자전거(自轉車)」, 앞의 책, 145면.

39) 박성태, 「해방 이후(1945-1948) 염상섭 소설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 『구보학회』 23, 구보학회, 2019, 408면.

40) 신은경, 「염상섭의 1950년대 전시소설에 나타난 '민족문학' 연구」, 『현대소설연구』 81, 현대소설학회, 2021, 121면.

41) 나보령, 앞의 논문, 49면.

꼬방」, 「자전거」와 같은 작품들에서 분명 좌익에 대해 부정적인 형상화가 부조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 단편에 재현된 좌익 형상을 두루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염상섭의 정치적 노선은 해방기 때부터 고수해왔던 중립적 시각과는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는 1948년 『효풍』을 집필했던 염상섭과 1950년대 초 염상섭의 정치적 인식을 대비시킬 때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위의 세 소설이 “제 비위에만 틀리면 단통 뺑깡이를 들썩”⁴²⁾우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던 『효풍』과 상당한 인식론적 낙차를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잭나이프」에서 최인순을 두고 “물론! 그런 것은 없애버려야하지!”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가감없이 발화했던 범일 선생, 그리고 「자전거」에서 인민위원회에서 두들겨 맞은 날 “며칠 있음 나와서 이놈 자식들 다시보자!”라며 유엔군의 인천 상륙 이후를 기약했던 상기가 그간의 염상섭의 소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형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염상섭이 그간 고수해왔던 중립적 노선을 포기하고 반공 노선으로 기울어졌다고 단언하기에도 무리는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해방의 아침」이나 「잭나이프」가 예증하고 있는 것처럼, 설사 적치하를 다룬 염상섭의 단편소설에서 반공적 시각이 좀 더 부각되었다 할지라도 좌익을 응징 내지는 축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잭나이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염상섭은 좌익 세력도 ‘커다란 나라’, 즉 새로운 민족국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주체로 재호명하기도 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들 작품과 유사한 시기에 발표된 장편소설에서 좌익 이념 내지는 좌익 인물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홍염』에서는 선옥의 장남 상근이가 인민군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사상적 협력을 독촉

42)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37면.

할 뿐 아니라 최호남과 같은 ‘반동분자’를 두고 “그따위 썩은 고깃덩이들은 쓰레기통으루 다 쓸어 넣어 해요.”⁴³⁾라고 말하는 등 전형적인 악한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취우』에서 강순제의 전남편으로 등장하는 장진은 좌익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폭압적 인물이라기보다는 그저 “뒷모양이 쓸쓸해 보이고 인할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 가없”⁴⁴⁾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홍염』과 『취우』의 상반된 형상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염상섭은 좌익 이데올로기 및 좌익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관되게 표출했던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이유로는, 염상섭이 식민지 시기 이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한 작품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염상섭이 카프 계열 작가들과의 논전을 통해 사회주의 문학 운동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해방기에도 역시 “나 자신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정세에 휘둘리기 싫기 때문에 어디까지 리버럴한 입장을 견지”⁴⁵⁾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가 일제 말기의 전시문학을 두고 “전시문학 같은 편향문학, 국수주의문학, 목적의식에 철저한 문학은 없을 것이요, 전시문학처럼 통제된 귀일(歸一)한 문학은 없을 것이다. 또 그리고 전시문학처럼 자유성과 독창성이 억압, 혹은 말살된 문학은 없을 것이다.”⁴⁶⁾라며 비판했던 점까지 고려해본다면, 염상섭이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반공주의를 표방·종용하는 획일적인 문학운동을 모두 배척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950~1952년 즈음의 염상섭은 해방기에 고수했던 중도적 입장을 고스란히 유지했던 것도, 그렇다고 반공주의에 심취했던 것도 아니었다. 적치하 서울을 다룬 그의 단편소설은 그가 중도적 입장과 반공적 입장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태롭게 서 있음을 분명하게 예증하고 있다.⁴⁷⁾

43) 염상섭, 『홍염·사선』, 글누림, 2018, 154면.

44) 염상섭, 『염상섭 전집 7 - 취우·화관』, 민음사, 1987, 118면.

45) 염상섭, 「해방 후의 나의 작품메모」, 『삼천리』, 1948.7; 한기형·이혜령 편, 앞의 책, 95면.

46) 염상섭, 「문단의 자유 분위기」, 『민성』, 1948.12; 한기형·이혜령 편, 위의 책, 117면.

47) 김윤식이 『취우』에서 염상섭의 가치중립적 태도를 읽어낸 이후, 대다수의 연구는 1950년대

이러한 그의 시각은 적치하 서울에서 3개월을 보내는 동안 좌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싹트고, 서울 수복 직후 ‘부역문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반공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휩싸여 해군 장교로 자진 입대했던 시기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치하 3개월 이후,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분명하게 밝히고 해군 정훈장교로서 반공의식을 고취시켜야만 했던 염상섭. 그는 이러한 자전적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군작가단을 결성하고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학적 흐름에 곧장 편승하지 않았다. 이 길은 자신의 정치적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위태로운 자전적 상황과 냉전적 분단 구조에 의해 작가의 자율성이 침식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 길은, 바로 반공문학이라는 기율이 작동하는 문학장 속에서 염상섭이 묵묵히 걸어가고자 했던 자율적이면서도 고유한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기

1953년 2월, 해군본부 정훈감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염상섭은 미군정기 일본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일본이 독립한 후, 미군점령 7년간의 득실은 □□한 가운데 어떠한 눈

염상섭의 작품에 내재된 중도적 입장에 주목해왔다. 물론 이러한 독법 자체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논문을 통해서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염상섭이 해방기 이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도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하기에 한국전쟁, 더 구체적으로 말해 적치하 3개월의 경험이 중요한 결절점임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염상섭의 작품에 나타난 공산주의 내지는 좌익 세력에 대한 재현이 다소간 반공적 시각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해방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염상섭의 중도적 입장에 지나치게 착목했던 것은 아닐까.

자는 “각인(各人)의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기탄없이 말할 수 있었다”고 한 것은 매우 흥미 있는 말이다. 당연히 미군정 밑에 숨을 죽이고 신음하여야 할 패전국민이 도리어 승전국민처럼 붓의 자유, 혀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이었다. (…)그리고 보면 미국은 일본의 군벌에게서 일본사람을 민주주의적으로 해방하여주기 위하여 싸워준 세움쫓 되었다고도 할 것이다.⁴⁸⁾

2차대전이 종료된 직후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미군정 체제하에 놓인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염상섭은 일본의 변화를 접하곤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낀다. 2차 대전이 종결된 직후 일본이 남한과 함께 미군정 체제하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역사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할 패전국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과거 피식민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염상섭으로 하여금 선망과 질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이 글에서 “우리는 일본과도 달라서 패전전(敗戰田)으로 군 점령하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해방되어야 할 군벌이나 천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얻은 것도 자유였고 잃은 것도 자유였는지?”라고 질문한 후, “민주주의 육성을 위한 대중교육의 교재”로서 정치소설이 나와주길 희망한다고 밝힌다.

식민지 시기 카프와의 논전을 통해 이념적 언설이 소설을 통해 직접 발화되는 것을 거부해왔던 염상섭이 ‘민주주의 육성을 위한 정치소설의 창작’을 권장하는 것 자체도 흥미롭지만, 우리가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미군정에 대한 그의 시각이다. 위에 인용된 글에서 확인되듯, 염상섭은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미국이야말로 두 나라에게 민주주의적인 해방과 자유를 선사해

48) 염상섭, 「작가와 분위기-정치소설이 나와도 좋을 때다」, 『연합신문』, 1953.2.20.; 한기형·이혜령 편, 앞의 책, 219-220면, 강조는 인용자.

줄 수 있는 유력한 조력자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사실, 이는 해방기 내내 ‘통일’과 ‘자주’를 내세우면서 민족통일을 염원하고 군정 체제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염상섭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진술이기도 하다.⁴⁹⁾ 한때 좌우합작 및 단선반대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미군정 재판에서 징역까지 언도 받았던 염상섭의 개인사까지 감안해 볼 때,⁵⁰⁾ 그에게서 미군정에 대한 호의를 기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은 어떤 계기로 미군정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

미군정이 자주적인 민족통일을 방해하고 좌우분열을 조장한다며 비판했던 ‘해방기의 염상섭’과 민주주의적 해방을 매개하는 존재로 미군정을 호명했던 ‘1953년의 염상섭’. 그 두 시점의 염상섭 사이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이 가로놓여져 있다. 염상섭의 시선에서 볼 때 해방 직후부터 패전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선물을 부여받았던 반면, 한국은 냉전적 대립이 격화되고 한국전쟁이라는 참화를 경험하면서 그 가치를 모두 훼손당하게 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목도하면서,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아

49) 물론 염상섭이 미군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방기 내내 미군정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유지해온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부문별 위원회 설치와 실질적 이양」(『신천지』, 1947.2)와 해방기의 대표작이라 일컬어지는 『효풍』(『자유신문』, 1948.1.1.~1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상섭은 전자의 평문에서 미군정이 민생문제 해결과 군정 이양이라는 두 가지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방관하는 미군정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와 더불어 『효풍』에서도 박병직의 입을 통해 좌우익을 분열시키려는 미군정의 책략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만큼, 염상섭은 미군정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외에 해방기 염상섭의 소설에 나타난 ‘미국화’ 재현 양상에 대해서는 전준지, 「‘미국화’ 수용에 따른 작중 인물의 태도 연구 - 해방 이후의 염상섭 소설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2017을 참조.

50) 염상섭은 1948년 4월 28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동년 5월 1일에 징역 5년에 벌금 80만 원을 언도 받는다. 그리고 며칠 후 조건부 집행유예로 석방되지만, 그 이후 염상섭의 문학적·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수축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2019, 411-418면을 참조.

내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인용된 대목에서 우리는 미군정에 대한 염상섭의 드라마틱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의 강렬한 꿈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네 편의 단편소설을 통해 유추해볼 때, 적치하 서울에서의 3개월간 염상섭에게 있어서 좌익이 내세운 구호는 그저 ‘자유 없는 해방’과 ‘민주 없는 민주주의’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가 「하치않은 回憶」에서 “석 달 동안 부대끼느라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이 서울”을 떠나려고 했던 것도, 『취우』에서 영식의 입을 빌어 “따는 정신적으루 해탈상태에인 것은 사실야. 남하했던 사람은 그래두 육체적으론 그렇지두 않겠지만 서울 시민은 육체적으루두 껌데기만 남았으니까.”⁵¹⁾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민주주의 육성을 위한 대중교육의 교재”로서 정치소설이 나와 주기를 갈망한다고 말할 정도로, 염상섭은 적치하 3개월의 경험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간주했던 터라, 앞서 살펴본 네 편의 단편소설에서 우리는 반공의 사유와 중도적인 사유가 중첩되고 균열되는 양상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염상섭의 정치적 사유가 얼마만큼 숙성되고 지속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된 작품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종호가 잘 지적한 것처럼, 염상섭은 각각 다른 소설들 속에 유사한 장면이나 사건들을 겹쳐놓거나 혹은 단편소설의 대목을 장편소설에 삽입하면서 중첩시키는 방식을 즐겨 사용해왔다.⁵²⁾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금까지 논의한 단편소설들은 1950년대 염상섭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해석적 좌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해방의 아침」에서 그려진 부역의 문제라든지 「자전거」에서 전쟁이라는 사건 속에서도 일상적이고

51) 염상섭, 『염상섭 전집 7 - 취우·회관』, 앞의 책, 253면.

52) 이종호, 「작품해설: 냉전체제 하의 한국전쟁을 응시하는 복안」, 『홍염·사선』, 글누림, 2018, 285면.

개인적인 연애를 꿈꾸는 서사는 『취우』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지고, 「탐내는 하꼬방」이나 「잭나이프」에서 등장한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좌익의 형상은 『홍염』에서 다시금 출몰한다. 이렇듯 적치하를 다룬 염상섭의 단편소설에서는 그의 장편소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세부 모티프와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기에, 염상섭 소설의 총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초반에 발표된 장편소설뿐만 아니라 단편소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염상섭, 「해방의 아침」, 『신천지』, 1951년 1월호(전시판),
 _____, 「짜나이프」, 『국제신보』, 1951.11.21.~28.
 _____, 「탐내는 하꼬방」, 『염상섭전집 10』, 민음사, 1987.
 _____, 「자전거(自轉車)」, 『협동』 36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1952.9.1.
 _____,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I~III』, 소명출판, 2013~2014.
 _____, 권영민 편, 『염상섭 전집 1~10』, 민음사, 1987.
 _____, 『홍염·사선』, 글누림, 2018.
 『현대문학』, 『예술원보』, 『전선문학』,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천지』, 『부산일보』,
 『국제신보』, 『한겨레 21』, 『협동』 등

2. 논저

- 공종구,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한국전쟁」, 『현대문학이론연구』 7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김양선, 「염상섭의 『취우』론 - 욕망의 한시성과 텍스트의 탈이념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어문』 14, 서강어문학회, 1998.
 김영경, 「적치하 '서울'의 소설적 형상화 - 염상섭의 『취우』 연구」, 『어문연구』 4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 출판부, 1974.
 김종욱, 「염상섭의 『취우』에 나타난 일상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나보령,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박성태, 「해방 이후(1945~1948) 염상섭 소설의 중도적 정치성 연구」, 『구보학보』 23,
 구보학회, 2019.
 신영덕, 「『취우』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성격」, 『한국현대문학연구』 1, 한국현대문학회,
 1991.
 _____, 「전쟁기 염상섭의 해군 체험과 문학활동」, 『한국학보』 18-2, 일지사, 1992.
 신은경, 「1950년대 전시소설 연구 - 전시의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
 위논문, 2021.

- _____, 「염상섭의 1950년대 전시소설에 나타난 ‘민족문학’ 연구», 『현대소설연구』 81, 현대소설학회, 2021.
- 유승환, 「잔류과와 도강과의 내적 논리와 ‘공모의 공간’으로서의 고백적 글쓰기», 『우리어문연구』 71, 우리어문학회, 2021.
- 이민영, 「전시의 서울과 피난의 (불)가능성»,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 이보영, 『염상섭 문학론』, 금문서적, 2003.
-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이북편/1950~1953)』, 태학사, 1993.
- 이중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2019.
- 이철호, 「반복과 예외, 혹은 불가능한 공동체 - 『취우』(1953)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 전훈지, 「‘미국화’ 수용에 따른 작중 인물의 태도 연구 - 해방 이후의 염상섭 소설을 중심으로」, 『춘원연구학보』 10, 춘원연구학회, 2017.
-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현대문학사, 1968.

<Abstract>

Seoul in occupation period and Yeom Sang-seop – Focusing on Yeom Sang-seop's short story in early 1950s

Lee, Man-young

This study analyzes Yeom Sang-seop's short story, which is set in Seoul in occupation period. Yeom Sang-seop stayed in Seoul for nearly three months between the start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and Seoul's restoration on September 28, 1950. Based on this autobiographical experience, he produced numerous works, including "*Morning of Liberation*," "*Coveted Hakobang*," "*The Jackknife*," "*The Bicycle*," "*House search*," "*Red Flame*" and "*A Shower*." One of these, short stories by Yeom Sang-seop about Seoul in occupation period, has not been included in earlier research. Accordingly, this study would like to reveal what kind of cracks caused by the centrist position that Yeom Sang-seop maintained throughout the liberation period and how his views on left-wing ideology were embodied in his work through the analysis of four works, "*Morning of Liberation*," "*Coveted Hakobang*," "*The Jackknife*" and "*The Bicycle*." First, "*Morning of Liberation*" and "*The Jackknife*" are works that explore the direction of national reconstruction after the restoration of Seoul (9/8). The selection and punishment of collaborators during Seoul's restoration are major issues raised by "*Morning of Liberation*." Yeom Sang-seop criticizes the political and social processes that make it so simple to expel and exclude remnants by illustrating the hardship of the them, who must demonstrate their identity in order to avoid being forced into collaboration. In "*The Jackknife*," is a

work that reveals the artist's desire to form a unified nation-state by including them while accusing the left-wing forces of violence. These two works represent Yeom Sang-seop's personal political ideals, which aim for inclusiveness over exclusion and unity over divide. The next two works, “*Coveted Hakobang*,” and “*The Bicycle*,” are concerned with the pain endured by the survivors throughout the post-residence period. In the work “*Coveted Hakobang*,” the plight of the remaining people is depicted as they are forcibly taken from their property by left-wing troops in Seoul in occupation period. It is a problematic work that fully addresses the issue of 'property of collaborators or rebels,' which emerged as a social problem right after the restoration of Seoul. The piece “*The Bicycle*,” which is situated in the area of Seoul in occupation period, reproduces the reality of difficult love and independent survival by Sam-ryong and Cha-deuk, a family of collaborators. Unlike family of Pil-Jun in “*Coveted Hakobang*,” that their all ownership was taken away by the left-wing troops and they were constant groans, this work shows an active human who dreams of “freedom” while covertly making love and leading a simple life in Seoul in occupation period. His short story about Seoul in occupation period serves as an example of how perilously he straddled the anti-communist and centrist viewpoints. This is supported by the left wing's appearance in these works, and via the four short stories in this piece, the middle ground that Yeom Sang-seop has maintained since the liberation era has seen fissures and shifts.

Key words: Yeom Sang-Seop, Seoul occupation period, Seoul Restoration, communism, leftist, integration, division, exclusion, inclusion

투 고 일 : 2022년 8월 21일

심 사 일 :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2년 9월 22일